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18호

2024.08.22.(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중국·통상** 中, 세계무역기구(WTO)에 EU 제소
- 멕시코·전기차** 멕시코, 美 최대 전기차 공급국 부상 가능성 증대
- 미국·에너지** 美, 태양광 전지 셀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및 관세율 쿼터 확대
- 미국·반도체** 美 상무부, SK 하이닉스와 AI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PMT 체결

주간 이슈 포커스

- 중국·원자재** 中, 오는 9월부터 안티모니 수출통제 시행...업계 영향은 제한적

원자재 뉴스 PLUS

- 화학** 中, 자동차 타이어 생산량 확대로 對韓 부타디엔 수입 증가

II. 월간 공급망



마그네사이트 공급망 동향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소재·부품·장비 수출입 통계 분석

IV. 공급망 소식통



Case Study로 무역실무 노하우 습득하기 과정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통상 中, 세계무역기구(WTO)에 EU 제소

8.9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대변인 기자회견문을 통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임시 관세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다고 공고

작년 하반기부터 EU는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 中 기업 대상 수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7.5일부 중국산 전기차 대상 17.4~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

*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공공조달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쏠 분야에 걸친 집행위 직권 조사 시행

중국의 對EU 순수전기차 수출은 '23년 약 48만 대를 기록한 반면, '24년 상반기 수출은 약 22만 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中 상무부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WTO

출처: 中 상무부 보도자료('24.08.0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멕시코, 전기차 멕시코, 美 최대 전기차 공급국 부상 가능성 증대

8.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미국의 對멕시코 자동차 수입액은 독일보다 많은 31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멕시코가 美 최대 전기차 공급국이 될 가능성을 시사

'24년 상반기 미국의 전기차 수입액은 총 115억 달러(약 15조 2,700억 원)로, '24년 전기차 수입액은 전년도 총수입액인 188억 달러(약 25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의 對멕시코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4년 對멕시코 무역적자는 약 2,500억 달러(약 332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對멕시코 무역적자 추이: ('22년) 1,280억 달러 → ('23년) 1,525억 달러

핵심 키워드

전기차

멕시코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59호('24.08.0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미국, 에너지 美, 태양광 전지 셀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및 관세율 쿼터 확대

- 8.12일(현지시간) 美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전지(CSPV)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고, 관세율 쿼터를 12.5GW로 확대하기로 결정
 - 동 조치는 '24.8.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일자 이후 기존 쿼터를 초과한 태양광 전지는 수정된 쿼터를 적용해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제외
- 美 정부는 금번 신규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와 더불어 지난 6월 태양광 패널 201조 세이프가드 관세 예외 조항을 철회한 바 있음
 - 해당 예외 조항 종료 조치는 중국산 태양 전지의 수입 급증에 따른 미국 내 연관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

핵심 키워드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출처: 美 백악관 보도자료('24.08.1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미국, 반도체 美 상무부, SK 하이닉스와 AI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PMT 체결

- 8.6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최대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연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비 거래 각서(PMT)를 체결
 - SK 하이닉스는 약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美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 개발 시설을 건설할 계획
 - 美 상무부는 최대 5억 달러(약 6,7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며, SK 하이닉스는 25%의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예정
 - 새로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AI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활용되며 '28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 예정

핵심 키워드

HBM 반도체

보조금

출처: 美 상무부 보도자료('24.08.0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원자재 中, 오는 9월부터 안티모니 수출통제 시행...업계 영향은 제한적

8.15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내달 15일부터 안티모니* 및 관련 품목 수출 시 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

* (안티모니) 방염제 성분의 화합물로, 방산·항공우주·태양광 등 주요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물

한국의 안티모니 對中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약 74%이나, 금번 안티모니 수출통제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中 안티모니 수출통제 개요

배 경	中 정부는 금번 수출통제 조치를 자국 안보 강화와 핵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공급 현황	<p>(공급) 중국은 안티모니 세계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국으로, ▲광산 노후화, ▲광물 가공비용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감소* 중</p> <p>* 中 안티모니 생산량 추이: ('19년) 82,400톤 → ('21년) 60,000톤 → ('22년) 56,900톤</p> <p>(가격) '24.8월 기준 안티모니과 가격은 16만 위안/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8% 상승하며 가격 상승세 지속</p>
대상 품목	<p>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 관련 총 17개 품목과 3개 기술</p> <p>* (초경질 재료) 인조 다이아몬드·질화붕소 등 고경도 물질을 말하며, 절삭 도구·연마제로 항공우주·방산·高性能 전자기기 등에 활용</p> <p>(안티모니) 안티모니 정광·안티모니 산화물 및 수산화물 등 관련 12개 품목 및 1개 기술</p> <p>(초경질 재료) 관련 5개 품목 및 2개 기술</p>
통제 방법	<p>안티모니 및 관련 제품의 수출 시, 中 상무부의 이중용도 심사 및 허가 절차 필요</p> <p>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흑연 등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 국내로 수입 가능</p>
對韓 영향	안티모니는 납축전지·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납축전지用 안티모니의 경우 태국·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핵심 키워드

안티모니

수출통제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08.16)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화학

中, 자동차 타이어 생산량 확대로 對韓 부타디엔 수입 증가

한국은 '23년 中 1, 3-부타디엔* 수입국 1위를 기록했으며, '23년 중국의 對韓 부타디엔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9% 증가

* 부타디엔 : 타이어 등 합성고무 제조에 주요 사용되는 무색 기체

中 자동차 타이어 생산량은 7억 3,000만 세트로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생산 원료인 부타디엔 소비량도 지속 확대될 전망

출처: KOTRA 텐진무역관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8월 3주)

비철금속 |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에 따른 동 가격↑, 주요 생산기업 감산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7월	전년비(%)	8.2주	8.3주	전주비(%)
동	8,478	9,140	7.8	8,695	8,907	2.4
니켈	21,474	17,347	△19.2	15,983	16,004	0.1
아연	2,647	2,662	0.6	2,571	2,687	4.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칠레·페루 등 주요 구리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 세계 1위 구리 광산인 칠레 Escondida는 운영사 BHP社와 광산노조 간 계약갱신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심화

☐ (니켈) 호주 주요 니켈 생산기업들의 감산 추세로 니켈 가격 소폭 상승세 시현

철강 | 中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7월	전년비(%)	8.2주	8.3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2.77	△23.4	148.13	150.26	1.4
원료탄	295.71	271.00	△8.4	214.62	206.30	△3.9
철광석	119.32	116.77	△2.1	101.71	96.74	△4.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철강재 산업 수요 둔화 및 철광석 수입 감소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유연탄) 계절성 수요 확대에 따른 유연탄 가격 상승세 지속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8월 3주)

희소금속 | 공급과잉으로 탄산리튬 가격↓, 원료 비용 상승에 따른 희토류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7월	전년비(%)	8.2주	8.3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20	△3.6	1,240	1,240	-
탄산리튬	35,697	13,962	△60.9	10,996	10,525	△4.3
수산화리튬	37,972	12,682	△66.6	10,912	10,357	△5.1
코발트 (U\$/lb)	17.82	16.84	△5.5	15.75	15.7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8,184	△18.8	246,300	246,500	0.1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3,705	△31.5	52,750	54,190	2.7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탄산리튬은 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지속으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리튬 공급량 증가세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률을 초과하며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 8.16일(현지시간) 기준 광저우 선물거래소의 11월물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72,950위안으로 부진한 수요 전망을 반영

 (희토류) 산화 네오디뮴·산화 디스프로슘은 원료 비용 상승 및 수요 업체의 구매 문의 증가로 전주 대비 가격 상승

에너지 | 경기침체 우려 완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원유 가격↑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8.2주	8.3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2.95	0.85	75.54	79.14	3.60
브렌트유	82.17	83.14	0.96	77.99	80.95	2.96
WTI	77.60	78.82	1.22	74.88	78.39	3.51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경기침체 우려 완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원유 수요 전망 하향,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은 유가 상승폭 제한

▶ 美·중이 발표한 7월 소매판매가는 전월 대비 각각 1.0%, 2.7%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 상회

▶ 8.9일(현지시간) 기준 美 상업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40만 배럴 증가해 6주 연속 감소세 마감

월간 공급망

◆ 마그네사이트 공급망 동향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마그네사이트(Magnesite)는 탄산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 광물이며, 내화재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은 마그네사이트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中 마그네사이트의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 마그네사이트 산업 가치사슬

- ▶ 마그네사이트의 주요 다운스트림 응용 분야는 내화재(耐火材), 화학공업, 건축재료, 경공업과 농목업 등이다. 특히 내화재는 마그네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다운스트림 응용 분야로 마그네사이트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마그네사이트는 소성(烧成), 용융(熔融)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마그네슘질 내화재를 제조하는데, 주로 철강, 시멘트, 유리, 세라믹 등 고온공업의 용광로 안감에 사용된다.
- ▶ 그 다음으로 마그네사이트가 많이 활용되는 다운스트림 분야는 화학공업 분야로 마그네사이트 소비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마그네사이트는 금속 마그네슘을 정제하는 주요 원료이며 금속 마그네슘은 중요한 경금속으로서 항공우주, 자동차 부품, 전자통신 등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등 화학공업 제품을 제조하여 제지, 비누, 식품, 의약품 등을 만들기도 한다.
- ▶ 건축재료는 마그네사이트의 신흥 다운스트림 응용 분야로 마그네사이트 소비량의 약 5%를 차지한다. 산화마그네슘 시멘트, 산화 마그네슘판 등 마그네슘질 건축재료는 밀도가 낮고 단열성이 좋은 특징이 있다.

[표 1] 마그네사이트 산업 가치사슬



[자료원] 화경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현황

- ➡ 미국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22년 글로벌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8억 톤에 달하며, 주로 러시아, 중국, 슬로바키아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각각 전체 글로벌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8%, 8.5%, 5.4%이다.
- ➡ 화경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년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약 5억 8,000만 톤이었는데, '22년에는 약 6억 8,0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자원은 주로 랴오닝(辽宁)성, 허베이(河北)성, 산둥(山东)성, 안후이(安徽)성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랴오닝성 랴오둥 지역의 잉커우(营口), 다스차오(大石桥), 하이청(海城) 일대는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자원 집중 지역이다. 화경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랴오닝성은 중국 최대 마그네사이트 매장지이며, 그 품질도 우수하다. '21년 랴오닝성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약 5억 3,200만 톤으로 매장량이 중국 총매장량의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그네사이트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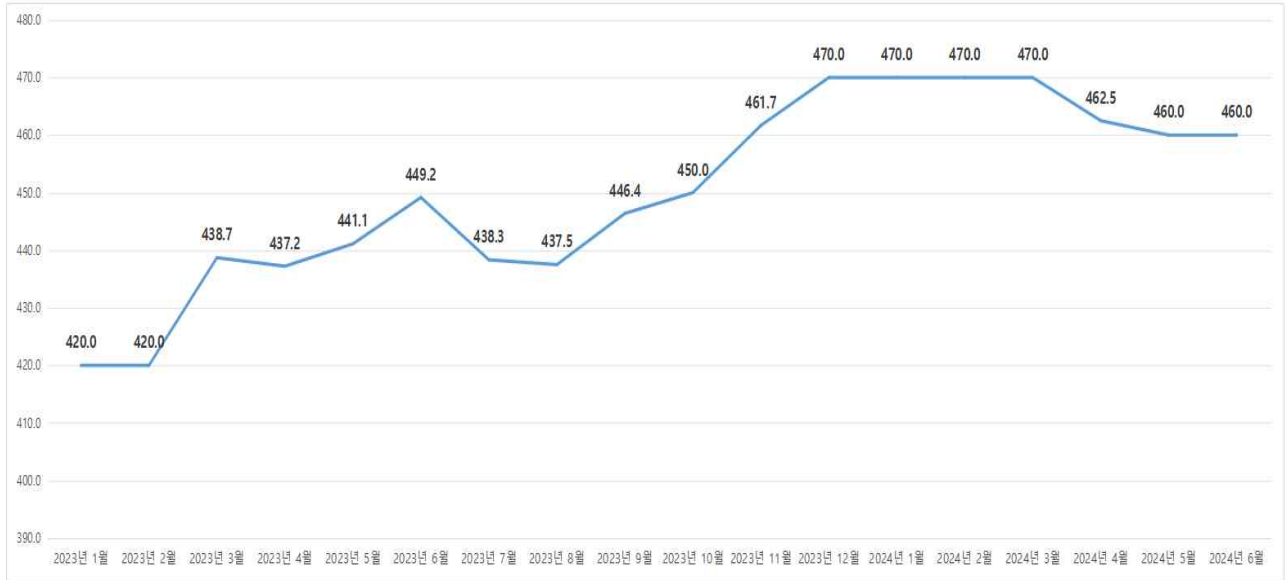
-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마그네사이트 매장지이며, 중국은 그 뒤를 이어 2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미국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은 '20년과 '21년 동일하나, '22년은 '21년 생산량 대비 5.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은 1,700만 톤으로 글로벌 총생산량의 63%를 차지한다. '25년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은 2,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마그네사이트 가격 동향

- ➡ '23.8월부터 마그네사이트의 중국 월평균 가격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23.12월부터 '24.3월까지 4개월간은 최근 1년간 최고점인 톤당 470위안의 가격이 지속됐다. '24.4월부터는 다시 소폭 하락했지만, 그 하락폭은 전월 대비 1.6%로 크지 않았다.
- ➡ 한편 중국에서는 마그네사이트 자원 수급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광산 채굴이 제한되어 마그네사이트 자원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다시 소폭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23.1월~'24.6월 기간, 中 마그네사이트 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자료원] BAIINFO

韓-中 수출입 동향

- 중국 마그네사이트의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對인니 수출액은 '20년부터 지금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2년 중국의 對인니 수출액은 약 4,000만 달러로 '21년 대비 225.3% 증가했으며 '23년 對인니 수출액은 약 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수출량이 6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표 2] '20~'23년 中 마그네사이트(HS Code: 251910.0000) 주요 수출국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수출액	증감률(%)
1	인도네시아	1,765	12,371	40,283	55,099	36.9
2	일본	6,227	8,405	12,642	14,819	17.8
3	필리핀	756	697	578	765	32.4
4	뉴칼레도니아	591	0	0	307	-
5	호주	278	207	28	258	821.4
6	한국	173	254	385	223	△42.1
7	뉴질랜드	198	132	504	220	△56.3
8	미국	31	0	46	74	60.9
종합		10,155	22,176	54,530	71,919	31.9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 ▶ 한편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마그네사이트 주요 수입국 1위도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중 수입액은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3년 한국의 대중 수입액은 다소 줄어든 수치인 33만 5,413달러로, 전년 대비 2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체코, 일본, 영국에서의 수입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20~'23년 韓 마그네사이트(HS Code: 251910.0000) 수입국 (단위: 달러)

순위	국가명	'20년	'21년	'22년	'23년	
					수출액	증감률(%)
1	중국	382,121	452,144	468,564	335,413	△28.4
2	체코	0	30	296	36,523	12,238.9
3	일본	37,802	27	13,944	26,689	91.4
4	그리스	40,261	41,719	0	14,266	-
5	영국	14,322	4,372	273	8,786	3,118.3
종합		493,418	557,111	491,895	424,959	△13.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마그네사이트 유통 현황

- ▶ 중국의 마그네사이트 유통 방식은 주로 자체 생산 판매를 병행하며 온라인 플랫폼(爱采购, 1688) 기반 판매도 있다. 한편 이통망(易通网, 중국 통관관세 DB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마그네사이트 수출 시 수출허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허가증 신청은 각 무역방식(일반 무역, 가공무역, 국경 소액 무역)에 따라 적합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마그네사이트 정책 동향

- ▶ 마그네사이트 최대 생산지인 랴오닝성의 지방정부는 마그네사이트 수급조정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표 4] 中 마그네사이트 산업 관련 정책 동향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 내용
랴오닝성 공업정보화청 랴오닝성 국가신형원자재기건설공정센터	마그네사이트 산업 응용기술 확대 장려와 제품 목록('23.9월) (菱镁产业鼓励推广应用的技术及 产品目录)	- 첨단 수산화마그네슘 생산 기술·저품질 마그네사이트의 고효율 정제 핵심 기술·활성 산화마그네슘 제품 등 77개 기술 및 제품 보급화
랴오닝성 공업정보화청	랴오닝성 마그네사이트 부유선광 및 마그네시아 업계 생산능력 발전 방안('24.1월) (辽宁省菱镁矿浮选及镁砂行业产 能置换办法)	- 각 지역의 마그네시아 생산능력 제어 및 생산능력 환산표 최적화 추진 - 마그네사이트 부유선광 및 마그네시아(경소 산화마그네슘, 중급 마그네시아, 고순도 마그네시아 등) 관련 모든 항 목에 대한 생산능력 향상 추진

출처: 화경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USGS 등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소재·부품·장비 수출입 통계 분석

상반기 수출입 개요

- ① **(수출)** '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761억 달러
 ◆ 월평균 수출액은 294억 달러를 기록,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2위 실적
 * 역대 상반기 수출액(억 달러) : (1위)_{1,942('22년)} → (2위)_{1,761('24년)} → (3위)_{1,718('21년)}
- ② **(수입)** '24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199억 달러
- ③ **(교역)** '24년 상반기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960억 달러
- ④ **(수지)** +563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362억 달러) 대비 +201억 달러 개선
 ◆ '23년 7월부터 플러스 추세를 12개월 연속 유지하면서 총 +563억 달러 흑자 기록

상반기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3년	'24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수 출	1,610 (△17.1)	282 (+15.1)	279 (+6.5)	297 (+1.7)	295 (+14.4)	306 (+12.0)	306 (+9.1)	1,761 (+9.0)
수 입	1,248 (△5.0)	201 (△0.5)	182 (△6.2)	211 (△5.8)	209 (+3.1)	205 (△3.6)	193 (△9.2)	1,199 (△6.5)
교 역	2,858 (△12.2)	482 (+7.6)	460 (+0.9)	508 (△1.6)	504 (+8.5)	511 (+5.1)	499 (+1.2)	2,960 (+3.6)
수 지	+362	+82	+98	+87	+86	+100	+114	+563

품목별 수출입 동향

- ①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서버·PC 등 글로벌 전방산업 수요 상승세,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 및 업황 회복으로 수출 +87.5% 증가
- ② **(기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32.5%), 변압기(+54.4%), 평판 디스플레이(+9.7%) 등의 수출이 증가

주요 지역별 소재·부품·장비 수출입 동향

- ① **(미국)** 메모리 반도체(전방산업 수요 증가), 변압기(노후전력망 교체 주기 도래), 산업공정장비(제조업 투자 증가) 등 주요 품목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이 +18.6% 증가
- ② **(중국)**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석유화학 자급화) 등 일부품목 감소에도, 메모리 반도체(단가 회복 및 수요 증가) 등 주요 품목의 호조에 따라 수출이 +14.2% 증가

공급망 소식통

Case Study로 무역실무 노하우 습득하기 과정 안내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개요

- 대상: 무역실무 유경험자(3년차 이상 권장)
- 일시: 2024.9.4.(수) 09:30~17:30 [7시간]
-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4층 무역아카데미 강의실
- 수강료: 일반 28만원 | KITA 회원사 25만원
- 마감: 선착순 20명 [조기마감 유의]

☐ 프로그램 상세

주제	교육내용
수출입 핵심이론	무역 full process 핵심이론 요약정리 -수출입 사전준비 -수출입 절차 (이하 생략)
무역계약 대금결제 Case study	무역계약, 대금결제 Case Study -인코텀즈 -무역계약의 성립 (이하 생략)
대금결제 Case study	무역계약, 대금결제 Case Study -강사해설
무역분쟁 Case study	무역분쟁 조별토론 -녹취 판례 -EXW, CIF 분쟁사례 (이하 생략)
무역분쟁 Case study	무역분쟁 강사해설 -각 case별 강사해설 -강사와 교육생 상호토론 -질의응답

* 수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모이지 않을 경우, 연기 또는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별도로 문자 메시지 발송/안내 하고있습니다.

☐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우측에 표기된 [수강신청하기]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
- 관련 문의 : ☎ 02-6000-5375(한국무역협회 무역연수실)

글로벌 경제지표 ['24.8.20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7말	8/16	8/19	8/20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76.50	1,357.60	1,334.00	1,333.20	△0.06%	3.51%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73.80	1,355.10	1,330.80	1,330.20	△0.05%	3.37%
₩/CNY	181.44	181.37	190.39	189.14	187.26	186.44	△0.44%	2.80%
₩/¥100	945.56	912.25	900.91	911.51	917.09	906.26	△1.18%	△0.66%
¥/U\$	133.73	141.19	152.79	148.94	145.46	147.11	1.13%	4.19%
U\$/EUR€	1.0617	1.1105	1.0819	1.0984	1.1041	1.1077	0.33%	△0.25%
CNY/U\$	6.9630	7.1092	7.2305	7.1747	7.1365	7.1449	0.12%	0.50%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6.2원, (₩/¥100) 889.8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8/5	8/6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7.80	75.67	△2.1	5.4	△1.4
						△2.7%	7.6%	△1.8%
철광석		97.35(5.24일)	140.50	94.45	95.1	0.6	△2.3	△45.4
						0.7%	△2.3%	△32.3%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115.50	9,152.00	36.5	1,339.5	676.0
						0.4%	17.1%	8.0%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369.50	2,435.00	65.5	366.5	99.5
						2.8%	17.7%	4.3%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6,285.00	16,600.00	315.0	715.0	300.0
						1.9%	4.5%	1.8%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6말	'24.7말	8/15	8/16	8/19	8월(~1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7	1.97	1.99	1.99	1.98	1.99
(%, YoY)	29.9%	△23.0%	△14.8%	23.7%	32.5%	36.0%	36.1%	36.1%	36.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7	6.32	6.31	6.31	6.30	6.30
(%, YoY)	14.7%	10.7%	△2.3%	0.5%	0.2%	△0.4%	△0.3%	△0.5%	△0.2%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8/2	8/9	8/16	전주비(8/9)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3332.67	3253.89	3281.36	0.8%	86.5%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8/15	8/16	8/19	8/20	전주비(8/19)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692	1691	1708	1735	1.6%	△17.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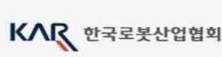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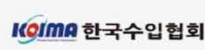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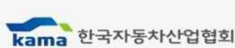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